

# 조계종 종회의원 보궐선거 확정

중앙선관위, 28일 회의사... 대흥사, 선운사, 직능분야

## 봉선사 주지 산중총회 9월 3일 비구니 종회의원 재선거 연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와 봉선사 주지 후보 선출 산중총회 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예)는 7월 28일 제304차 회의를 열고 22교구 대흥사, 24교구 선운사, 직능분야 중앙종회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대흥사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월우 스님의 본사 주지 당선으로, 선운사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경우 스님의 본사 주지 당선으로 열리게 됐다. 대흥사와 선운사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9월 3일 열리며, 투표서는

해당 본사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은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다.

또한 영배 스님의 통도사 주지 취임으로 공석이 돼 열리는 직능대표 교육분야 선거는 8월 31일로 일정이 정해졌다. 다만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재선거는 관련 사안이 법규위원회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 연기됐다. 이에 따라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2월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월 8일 주지 임기가 만료되는 25교구 봉선사의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도 9월 3일로 정해졌다.

신성민 기자

## “비구니회 운영위 소집 유감”

### 열린비구니모임, 30일 입장문 발표

8월 11일로 예정된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와 관련해 열린비구니모임이 운영위원회 운영 중단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열린비구니모임과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3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심히 유감”이라며 “현 집행부는 위법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8월 11일 개최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3월 결의대회에서 불인정된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는 더 이상의 활동을

중지하고, 현 집행부는 비구니 대중의 뜻에 따라 즉각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27일 열린 법규위원회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 구성에 대한 위법심판의 건’을 차기회의로 이월한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열린비구니모임은 “종단의 구성인으로서 법규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매우 유감스럽다”며 “종단은 전국비구니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비구니들의 순수한 의지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과 자세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 흥국사 탱화 반환 움직임 본격화

### 재가연대 등 24일 위원회 발족

흥국사 탱화 반환을 위한 불교계 단체들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불력회, 삼보회, 동국대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24일 흥국사도난탕화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가칭, 이하 흥국사탕화반환대책위)를 발족하고, 봉선사에 대한 흥국사탕화 반환요청 성명서를 발표했다.

흥국사탕화반환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흥국사 탱화 즉시 공개 및 반환 △탕화 불법반출 및 은닉한 책임자 처벌 등 요구하고, 흥국사탕화 반출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흥국사탕화반환대책위는 “흥국사 탱화 도난사건에 동국학원 이사장이 관련됐다

는 추문에 동국학원 구성원들의 자긍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며 “의혹이 불거진 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불구 봉선사는 탱화를 보관하게 된 이유나 반환하지 않는 이유 등 어떤 것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문화재 은닉 행위로 불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에 봉선사 총무국장 선우 스님은 “현재 탱화를 대중에 공개할 수는 없다. 종무회의서 10월 중순에 탱화를 공식 반환하기로 결의했으니 그 후 흥국사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흥국사탕화반환대책위는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즉각적인 공개와 반환이 진행될 시 문화재 전문과와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이뤄지지 않을시 문화재은닉 등 혐의 관련 법적 조치를 밟을 것”을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공의 기구 구성... 후속 대책 기대

## 제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의미와 과제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의 재심 판결 논란에 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됐던 사부대중 100인 공사가 재심호계원 판결의 부당성과 관련 위원들의 사퇴를 권고하는 공의를 모았다.

조계종은 7월 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종단 개혁과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의제로 열린 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진행했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기존 위원과 초청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대중공사 참가자들은 전체, 모둠 토론 등 8시간 가까이 논의 끝에 재심호계원의 의현 스님 재심 결정이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결론을 냈다. 또한 “재심호계원들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해 재심 논란의 해법과 종단 과거사 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 결과를 중앙종회와 총무원에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 결의문 포괄적, 해석 ‘제각각’

이번 대중공사는 대중공의를 통해 의현 스님의 재심 결정이 “1994년 종단 개혁정신과 공의에 어긋났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관련 위원들에 대한 사퇴를 권고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성과다.

문제는 후속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게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의문 조문 자체가 해석의 폭이 넓기 때문에 40여 일동안 진행됐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중공사에 참여, 참관한 단체들의 논평을 보면 알 수 있다. 14개 불교 시민 단

- “재심호계원 판결 잘못” 공의 호계원장, 위원 사퇴 권고까지
- 자광 스님 “적법한 판결” 주장
- 대중공의 기구 실효성 담보해야
- 불교 단체들 ‘절발의 성공’ 평가

체가 참여하고 있는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는 7월 3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재심호계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참여자 전체의 통일된 입장이 전체 중도 대중의 여론과 다르지 않게 결론을 도출한 점은 성과”라면서도 “대중공의 기구 구성은 구성할 주체도 방향도 없는 100인 대중공사의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노정시킨 무의미한 결의”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7월 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종단 개혁과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의제로 열린 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8시간의 논의 끝에 의현 스님 재심 결정이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결론을 냈다.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는 “조계종단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선언에 따라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 판결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심호계원장과 재심호계원들은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사부대중 간 온도차 확인

이번 재심 판결 논란에 대한 대중 간 온도차가 대중공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전체 토론에서 대부분의 재가자와 일부 스님들은 의현 스님의 판결에 ‘문제 있음’을 지적했다. 이미 탈종한 인물을 처우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10개 모둠 토론의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모둠이 재심 판결이 잘못됐음을 지적했고 4개의 모둠은 판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종회의원과 본사 주지 스님들은 중심으로 1994년 개혁 당시 이뤄진 ‘별된 징계가 정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헌종법의 별된 제도를 불교와 종단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중공사 말미에 이뤄진 재심호계원장 자광 스님의 발언에서도 대중 간 입장 차가 확인됨을 알 수 있다. 자광 스님은 “이번 판결은 중헌 종법으로나 호계원법으로나 위배되는 사안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퇴에 대해서는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중공사는 끝났고, 결론은 도출됐다. 문제는 이에 따라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공과는 대중공사 참여 사부대중에게 있다.

신성민 기자 mtp79@hyunbul.com

# 광복70주년, 나라 사랑 의미 되새겨

## 진각종 7월 27~30일 '2015 회당문화축제'

### 체험·문화 행사 '풍성' 독도서 진흥국가 다례

울릉지역 최대 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은 회당문화축제가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각종 창주주 회당대중사 탄생지 울릉도에서 개최됐다.

진각종은 광복 70주년, 국민통합과 나라 안녕의 서원을 담아 ‘비나리 독도아리랑’이란 주제로 ‘2015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체험·전시마당과 공연마당으로 나눠 진행된 축제는 울릉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첫 무대는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미인’, ‘누구없소’, ‘봄비’, ‘고래사냥’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음악을 선



진각종은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울릉도에서 2015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 지역 최대 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보였으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5인으로 구성된 ‘트럼펫토리’의 타악 공연과 SBS 스타킹에 출연한 타악퍼포먼스 ‘플레이밍 파이어’의 공연은 도동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어 불후의 명곡을 통해 잘 알려진 박애리&팝현준 부부는 국악과 팝이 접목된 공연을 펼쳐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독도아리랑 콘서트 대미는 가수 김경호 밴드가 장식했다.

한편 행사에 앞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14회를 맞이한 회당문화축제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울릉도 지역주민들과 울릉도를 찾아 주신 관광객 모두 건강하고 복된 생활을 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29일 독도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진흥국가불사 현공다례를 봉행하고 국가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다. 김주일 기자

## 10.27법난 상흔 다룬 첫 미술전 열린다

### 조계종, 관련 공모전 개최

한국불교 최대 수난사로 기록되는 10.27법난을 재조명하는 첫 미술 공모전이 열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는 10.27법난의 진상을 알리고 아픔과 상처를 공유하기 위한 ‘10.27법난 2015년 미술전’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기간은 10월21일이며 만19세 이상이면 응모가능하다. 공모부문은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사진 등 5개 부문으로 10.27법난을 주제로 한 작품이어야 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에서 기본양식을 내려 받아 오는 10월21일 출품작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27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 위로와 응원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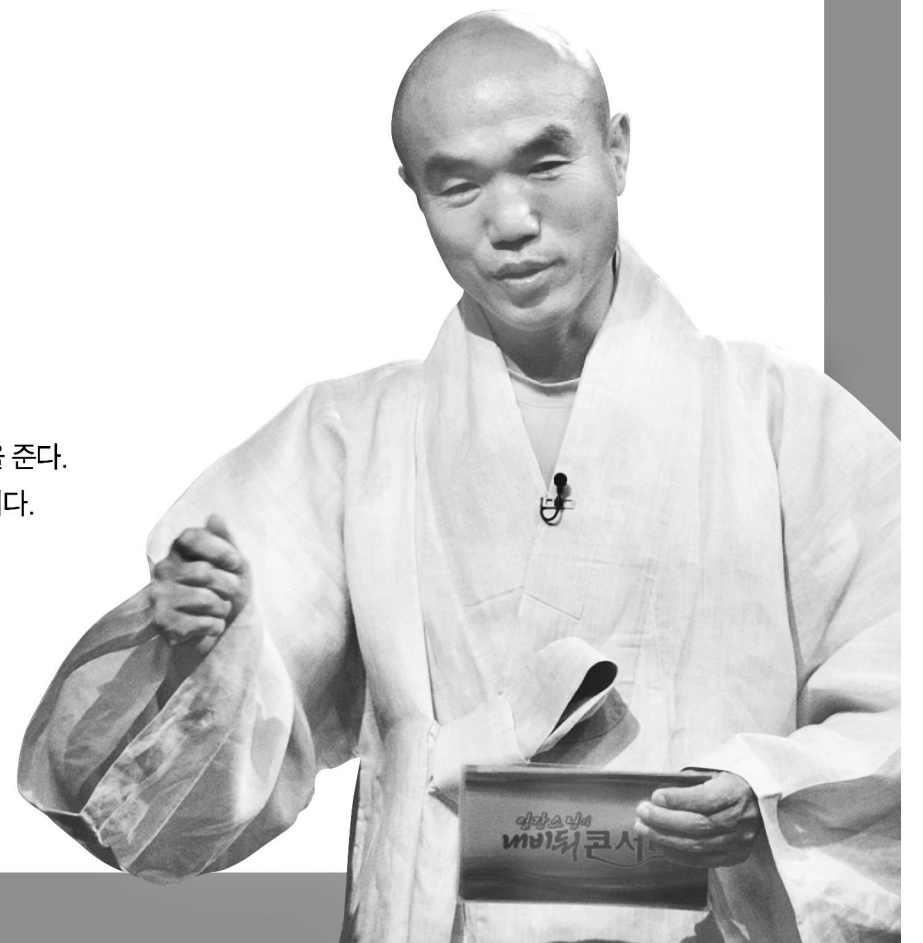
## ‘내비뒤 콘서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감 스님이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낸 금강경

우리 시대에 대한 사색과 통찰, 실천행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살아 숨쉬는 금강경 해설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지혜를 선사한다. 단순한 금강경 해설서라기보다 대중을 향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뚝뚝 담겨 있어 편편마다 잔잔한 감동을 준다. 스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삶이 공이요, 종생과 부처가 하나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화제의 시간

일감 저음 | 308쪽 | 15,000원 | 민속사 펴냄



**일감 스님 법문 및 사인회**  
일시 8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조계사 대웅전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북 토크 콘서트**  
일시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일감 스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눌 때면 5명 선착순 모집  
\* 문의 민속사 02.732.2403-4